



부안군의회 김광수 전의장, 일간지기자단 공로패 받아

부안군의회 제9대 전반기 김광수 전의장은 4일 '부안군의 회 언론간담회'에서 부안군 일간지기자단 방싯동 회장으로 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일간지기자단을 대표해서 공로패를 전달한 방싯동 국장은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성과를 이루었기에 김광수 전의장에게 공로패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수 전의장은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일간지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 상은 저 혼자 힘의 힘 아니라 지방자치를 위해 같이 노력해온 동료의원님들 덕분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전의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박병래 의장을 포함한 부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함께 평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적극적·혁신적 마인드 중요”

전북교육연수원, '총주맨' 김선태 주무관 초청 특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4일 연화관에서 지방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총주맨'으로 유명한 총주시청 김선태 주무관을 초청해 '총주시 유튜브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선태 주무관은 총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총TV'를 통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정책 홍보 콘텐츠를 선보이며, 연간 61만원의 예산으로 구독자 73만명 전국 지자체 유튜브 구독자 1위라는 성과를 냈다.

이날 강연에서 김선태 주무관은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도 조직을 바꿀 수 있다. 틀을 깨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문병기 원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오늘 강연을 통해 더 유연하고 열린 조직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진안군의회 이우라 부의장, 장학금 100만원 기탁

진안군의회 이우라 부의장은 4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기탁식을 군수실에서 가졌다.

앞서 이우라 부의장은 2023년에도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평소 진안의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경쟁력 강화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우라 부의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소중한 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 기탁에 참여하게 됐다"며 "지역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며 진안의 교육과 지역 인재 육성에 희망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이사장은 "활발한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진안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기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아이들과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진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우라 부의장은 진안군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2022년에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제9대 후반기 진안군의회 부의장에 선출돼 군민과 적극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국실업불링연맹, 남원시에 이웃돕기 물품 기부

남원시는 4일 한국실업불링연맹(회장 황윤하)이 물티슈 1,000개(환가액 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실업불링연맹은 불링 스포츠 대항회에 앞장서고 국민체력을 향상시켜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우수한 선수 및 단체를 지원 육성하는 연맹이다.

황윤하 회장은 "앞으로도 저소득계층의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실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선식 남원부시장은 "반드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면서 한국실업불링연맹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기부된 물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관내 저소득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마을 복지안전지킴이 위촉식·역량강화 교육

남원시는 3일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이하 지원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복지안전지킴이 위촉식을 갖고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마을의 위험지역을 예방하여 안전 취약 가구를 발굴하고, 지역의 안전 문제 개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등 지역 복지·안전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위촉식과 함께 실시된 공모사업 설명 및 역량강화 교육은 공모사업에 대한 배경과 목적을 통해 사업을 이해하고, 복지안전지킴이체 주요 역할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지원사업은 송파 세모나 사건과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고와 같은 복지·안전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안전교육,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 남원 복지안전 119업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진안읍에 JB희망의 공부방 171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4일 진안군 진안읍 드림케어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71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안군 김병하 부군수, 드림케어지역아동센터 안성자 센터장, 전북은행 전상의 부행장, 공명숙 진안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07년 개소한 드림케어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 조손가정 등 물품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학습과 놀이, 식사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8명의 아동이 방과 후 약 17명의 협소한 공간에서 학습과 여러 활동을 이어 가기에 불편함이 매우 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활동량이 많은 아동들을 위해 배란다 확장공사로 2평 정도의 공간을 추가 확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도매와 장판을 새롭게 하고 오래된 책상과 의자, 블라인드 등도 교체해주어 더 좋은 환경에서 아동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전북은행 전상의 부행장은 "아동들에게 지금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센터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만호 기자

남원 대강면, 찾아가는 생활복지 서비스 추진

남원시 대강면(면장 김종표)은 4일, 대강면행복협의회(위원장 권기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표) 위원들이 협업촌마을에서 찾아가는 생활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6월부터 3개월 동안 관내 10개 마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습식 족욕, 건식 족욕, 발바닥 마사지, 파리핀, 물리치료사 마사지 및 테이핑, 간호사의 혈압 및 당뇨 체크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용호 평촌마을 이장은 "대강면은 시내와 거리가 있어서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마을에 찾아가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며,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생활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표 대강면장은 "사업은 관내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유용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지역사회복지회, 착한가게 릴레이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치남, 조태봉)는 지난 3일 지역 내 위치한 해원공인중개사(대표 조태봉)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란 매일 최소 3만원 이상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는 가게를 말하며 '해원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지난달부터 기부에 동참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동충동의 11번째 착한가게로 지정됐다.

조태봉 대표는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의 생활을 실천하고 싶어 착한가게에 가입했다는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착한 가게가 될 수 있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에스앤비 이정화 대표, 정읍시에 고향사랑 등 기부

(주)에스앤비 이정화 대표는 4일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 최고한도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정읍시민정착재단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정화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와 장학금 기탁을 통해 정읍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시 시장은 "정읍 발전을 위해 큰 뜻을 전달해 준 이정화 대표에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인재양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에스앤비는 복면에 소재한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에 올해 4월에 입주한 사료 제조 업체로 주생산품은 단미 사료다. 경기도 화성시에도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주군 화산면 5기 지사협, 나눔 봉사 첫발

완주군 화산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눔과 봉사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3일 화산면은 제5기 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다짐했다.

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25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공동위원장은 황호년 위원, 부위원장에 이준구 위원, 총무에 백현숙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교육계, 지역아동센터장, 지역업자 등 평소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봉사에 열의가 있는 주민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익산 행운복권방, 나눔공간에 찰보리 100포 기탁

익산시는 4일 '행운복권방(대표 도경수)이 다리로움 나눔공간을 방문해 찰보리 5kg 100포(15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후원된 찰보리는 다리로움 나눔공간을 통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 먹거리 준비가 힘든 위기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도경수 대표는 지역의 든든한 후원자로 매년 다리로움 나눔공간에 물품을 기탁하고 있다. 2022년 백미 10kg 100포와 찰보리 5kg 100포 기탁에 이어 지난해 찰보리 5kg 100포와 장류 600개(300만 원 상당) 등을 지원했다.

도 대표는 "갑자기 찾아온 불볕더위에 입맛이 없을 이웃들을 생각하며 찰보리를 준비했다"며 "찰보리로 맛있게 식사하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나눔공간이 개장된 이래 항상 선호도가 높은 곡류를 기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고 답했다.

한편 행운복권방은 부승동에 위치하며 로또복권 1등이 여러 번 당첨된 행운이 넘치는 복권방이다. /익산=이재춘기자